

artnow

ISSUE 08

**Renaissance
City Now
Style & Art
Artists & People
Collector
2014-2015 Exhibition
Masterpiece**

by
Noblesse

artnow

16

〈아트나우〉와 함께 당신의 겨울을 훈훈히 덥혀줄 16가지 미술, 디자인, 패션 소식.

에디터. 이영균(youngkyoon@noblesse.com),

류현경(ryumo@noblesse.com)

장 미셸 오토니엘

베르사유의 구슬

금빛 구슬로 이루어진 거대한 곡선이
고요한 정원 사이를 어지러이 휘젓는다.
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 같은 이 기이한
형상은 최근 베르사유 궁전 공원의
'워터 시어터 그로브'에 설치한 장 미셸
오토니엘(Jean-Michel Othoniel)의
'Les Belles Danses' 프로젝트다.
지적이면서도 섬세한 감성으로 장식과
예술의 경계를 허물어온 프랑스의 대표적
설치미술 작가 장 미셸 오토니엘.
그는 지난 9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뒤
10월 FIAC을 통해 이 작품을 언론에
처음 공개했다. 오직 베르사유 궁전을
위한 오토니엘의 작품은 2015년 봄부터
직접 만날 수 있다.



사진: 제리 Gaëlle Perrain

베르사유 궁전에 설치한 'Les Belles Danses'